

2026. 05.  
제 5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관련 분야 협력 사업 현황]

SI 시대 아동 돌봄패러다임 전환 '서울미래아이 콘텐츠 개발'(2025)

역량 맵핑 및 돌봄 콘텐츠 플랫폼 구축(~'26.12.)

역량 체험 중심 돌봄 콘텐츠 개발 및 확산(~'26.12.)

영아·유아·초등 저학년기는 생애 전반의 성장 경로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형성되는 정서조절, 자기조절, 사회적 관계 경험은 이후 학습, 학교 적응, 정신건강, 나아가 성인기의 삶의 안녕감에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재 아동돌봄 정책은 보호와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아동 개별의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아동마다 경험과 성장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이러한 차이는 정책적으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놀이권 보장, 돌봄 공공성 강화, 지역 기반 확대 등을 통해 돌봄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 공백을 완화해 왔다. 이제는 이러한 기반을 넘어, 아동의 돌봄·놀이·체험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성장 흐름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지원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정책리뷰는 '서울아이 미래역량 맵핑'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안한다.

미래역량 맵핑은 아동을 평가하거나 선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아동의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성장 경향과 강점을 이해하고 향후 지원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접근이다. 즉, 아동의 현재 상태를 단순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 가능성과 성장 경로를 고려하여 지원을 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정책리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아동기 미래역량 조기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둘째, 국내외 사례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서울형 미래역량 맵핑 체계의 설계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아동을 단순한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성장의 주체로 바라보고, 아동 한 명 한 명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왜 지금 '아동 미래역량 성장 지원 체계'가 필요한가

### 저출생·고돌봄 구조의 심화와 정책 대응의 한계

-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2025)에 따르면 서울시 0~9세 아동 인구는 2025년 47.5만 명에서 2034년 34.5만 명으로 약 27%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아동정책 대상 집단의 구조적 축소를 의미함
- 동시에 한국은 합계출산율 0.72명(OECD 평균 1.4명)으로 최저 수준인 반면, 만 3~5세 공적 보육·교육(ECEC<sup>1)</sup>,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참여율은 94%(OECD 평균 83%)이며 만 3세 미만 영아의 약 2/3가 돌봄을 이용하는 등 전형적인 '저출생·고돌봄' 구조에 진입함. 0~5세 아동 1인당 보육·교육 공적 지출 역시 OECD 평균을 상회함
- 이는 돌봄 인프라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저출생 완화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함. OECD는 높은 주거·사교육비, 일·돌봄 양립 제약, 정책과 양육자 요구 간 괴리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출산율 1.5명 이하 국가에서 단순 재정 지원이나 시설 확대의 효과는 구조적으로 제한됨을 보고함
- 저출생은 가족의 삶 구조와 양육 기회비용을 재구성하는 변화이며 돌봄 이용률이 높은 상황에서도 부모의 체감 부담과 성장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충분히 완화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정책의 초점은 '공급 확대'에서 '성장의 질과 방향'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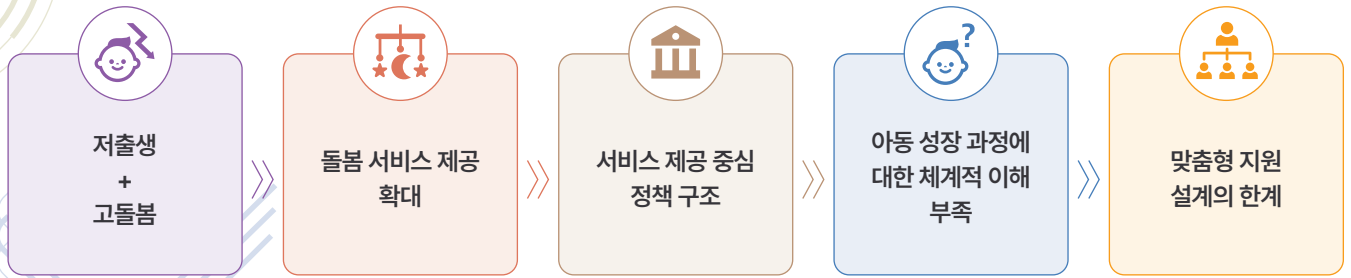


그림 1 | 기존 정책 대응의 한계

### 미래역량 관점에서 재정의되는 아동돌봄의 역할

- AI 전환과 사회 변화 속에서 아동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학습 성취를 넘어 정서조절, 자기조절, 협력, 문제해결, 디지털 리터러시 등 삶 전반과 연결된 복합적 역량으로 확장되고 있음. 이러한 미래역량은 학교 교육이나 단기 프로그램만으로 형성되기 어렵고 돌봄·놀이·관계 등 일상 경험의 누적 속에서 형성됨. 이에 따라 돌봄은 단순 보호 기능을 넘어 아동의 미래역량이 형성되는 핵심 생활 공간이자 정책 개입의 주요 무대로 재인식될 필요가 있음
- 국내 중단분석에서도 공적돌봄 이용 경험은 사회정서 및 인지 역량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이용 여부보다 경험의 질과 지속성이 성장 경로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됨. 이는 획일적 서비스 제공 방식의 한계를 시사함
- OECD의 「Starting Strong」 시리즈<sup>2)</sup>는 유아 보육·교육의 질은 구조적 특성과 과정상의 서비스 질(상호작용, 자극 환경 등)의 결합이며 특히 보육·교육 과정상의 서비스 질이 아동 발달과 직접적으로 연결됨을 강조함. 국내 역시 평가제와 누리과정 등을 통해 과정상의 서비스 질을 관리해 왔으나, 개별 아동의 성장 경로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해·설명하는 체계는 여전히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임

### 기존 아동돌봄 정책 구조의 한계와 성장 과정 이해의 확장 필요성

1)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유아교육·보육)은 보육과 교육을 통합한 개념으로 영유아의 발달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 서비스뿐 아니라 교육적 경험을 함께 제공하는 체계적 제도임. 이 개념은 단순히 보호·시간관리 기능에 그치지 않고 아동의 초기 발달 경험, 상호작용, 일상적 학습 기회를 포괄하는 과정 질(process quality)을 중시함

2) OECD가 2001년부터 발간해 온 유아교육·보육(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정책에 대한 국제 비교·분석 보고서

- Nurturing Care Framework<sup>3)</sup> 역시 생애 초기 정책의 핵심을 아동의 발달 경로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하는 데 두며, 서비스 제공 여부를 넘어 경험의 질과 발달 흐름을 함께 고려하는 관점을 제시함. 이 프레임워크가 시사하는 바는 단일 시점의 성과나 이용 여부만으로는 아동의 성장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임. 아동의 발달은 특정 시점의 결과가 아니라 시간에 따른 변화와 누적의 과정이므로, 돌봄 경험의 '이용 여부'뿐 아니라 성장 경로의 패턴과 축적까지 정책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종합하면, 아동의 성장은 시간에 따라 축적되는 과정이며 이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단위로 '역량'이 중요하게 작동함. 저출생과 양육 환경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개별 아동의 성장 경로를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성장 지원 체계'의 구축이 정책적으로 요구됨

## 국내외 사례 : 아동의 성장 경로를 다루는 정책적 접근

### 성장 경로 중심 정책 접근의 국제 동향

- 해외 아동 정책은 아동의 발달을 점수나 결과로 판단하기보다, 돌봄·놀이·학습 과정에서의 경험이 어떻게 쌓이고 변화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이러한 접근은 국가와 제도에 따라 방식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성장 과정' 중심이라는 공통점을 가짐
- 또한 최근 국제 논의에서는 미래역량을 개인의 능력으로 보지 않고, 사회와 제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의 결과로 이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역량은 평가 기준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기준으로 활용됨
- 이러한 흐름은 역량을 측정이나 선별의 대상이 아니라, 아동의 성장 경로를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통됨. 아래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실제 정책과 제도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함

표 1 | 성장 경로 중심 정책 접근 국내외 사례

성장 정보는 '선별·판정'이 아니라 '이해·조정·연결·설계'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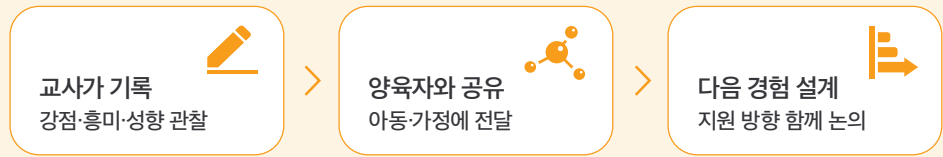
구분	핵심방식	성장정보활용
국제담론(OECD/WEF 등)	역량을 선별 기준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방향	측정→성장조건 설계 기준
 뉴질랜드	서사 기반 관찰·기록	개인 성장 이해·경험 선택 지원
 핀란드	다영역 지속 관찰·계획 조정	개별 지원 및 기관 운영 조정
 영국	전환기 공식 성장 프로파일	교육 단계 간 정보 연계
 캐나다·호주	집단 발달 맵핑	지역 정책 설계·지원 배분
 한국(청소년정책)	성장데이터 누적 플랫폼	개인 경험 연결·정책 방향 지원

3) 영유아기(특히 임신부터 만 3세, 확장해 만 5세까지)를 인간 발달의 결정적 시기로 규정하고 이 시기에 필요한 핵심 환경과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제시하는 국제적 정책·실천 프레임워크임. 세계보건기구(WHO), 유니세프(UNICEF), 세계은행(World Bank) 등이 공동으로 제시하였으며 보건·영양·교육·복지·보호를 아우르는 다부문 협력을 핵심 원리로 함. NCF의 목적은 모든 아동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아동과 양육자에게 지속적이고 질 높은 돌봄 환경(nurturing environment)을 보장하는 것임. 이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가정·지역사회·제도 전반이 아동 발달을 지지하도록 설계·연계되는 것을 의미함

### 뉴질랜드 : 성장 이야기 기반 관찰 접근

- 대표적으로 뉴질랜드의 Learning Stories는 교사가 놀이와 일상 속에서 관찰한 아동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학습 이야기’ 형태로 기록하는 방식임. 학습 이야기는 단순히 아동의 행동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강점, 흥미, 학습 성향이 어떤 맥락에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며 아동과 양육자에게 공유되어 이후의 경험과 지원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데 활용됨. 즉, 점수나 판정을 통해 아동을 구분하기보다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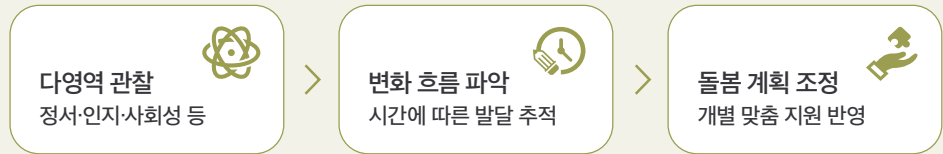
☑ 이야기 기반 기록으로 성장 맥락을 이해하고, 양육자와 함께 다음 경험을 설계



### 핀란드: 다영역 지속 관찰을 통한 계획 조정

- 핀란드 ECEC 체계에서는 아동의 발달을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교육 및 돌봄 계획을 조정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음. 이 접근은 특정 시점의 평가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와 발달 경로를 중시하며, 관찰된 정보를 실제 지원 계획에 반영하는 데 특징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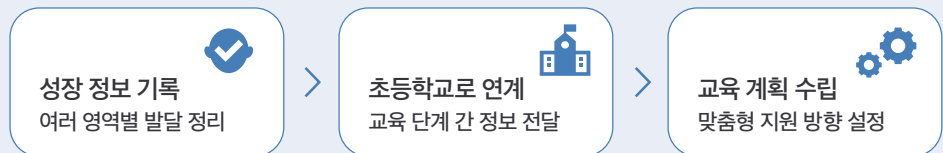
☑ 지속적 관찰로 아동의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개별 돌봄 계획에 유연하게 반영



### 영국 : 전환기 연계형 공식 성장 프로파일

- 영국의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Profile은 유아기의 성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초등학교 단계로 연계하는 제도임. 아동의 발달 상태는 여러 영역으로 구분되어 정리되며, 이 정보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됨. 이를 통해 아동의 성장 정보가 교육 단계 간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활용되는 구조를 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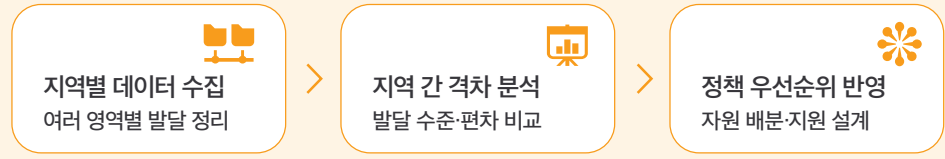
☑ 성장 정보를 초등학교로 연계하여 교육 단계 간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



### 캐나다·호주 : 집단 발달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 한편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아동 발달 정보를 국가 또는 지역 단위에서 수집·분석하여 정책 설계에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들 국가는 아동 개인의 평가를 넘어 지역별 아동 발달 수준과 격차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거나 지원 자원을 배분하는 데 활용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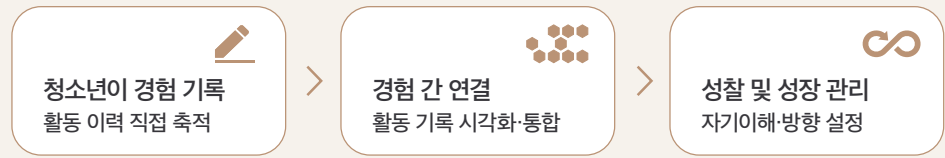
지역별 집단 데이터를 분석하여 발달 격차를 파악하고, 정책 우선순위와 자원 배분에 반영



### 국내 선행 경험: 청소년 성장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경험 축적·연결

- 국내에서는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해 정책적 기반과 플랫폼 중심의 시도가 진행되고 있음. 특히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청소년활동 기관, 청소년 당사자, 그리고 정책을 운영하는 기관이 주요 주체로 역할을 하고 있음. 이때 미래역량을 단순한 성취 점수로 보지 않고 개인이 어떤 경험을 축적하고 연결하며 성장하는 방향성으로 이해하려는 개념을 정책 목표로 설정함

청소년이 직접 경험으로 기록·연결하고, 이를 통해 자기이해와 성장 방향을 설정



- 국내에는 청소년 성장지원 마이데이터 플랫폼<sup>4)</sup>을 활용하여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활동 경험을 모으고 연결하고 되짚어 볼 수 있도록 지원함. 이 플랫폼은 경험 기록을 평가해 점수화하거나 청소년을 등급화하는 용도가 아니라 청소년 개인의 삶과 활동 기록을 시각화하고 성장 방향을 이해·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 기능함
- 앞서 살펴본 국내외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아동의 역량을 ‘측정’이나 ‘선별’의 기준으로 보기보다 성장 경로를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설계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즉, 아동의 발달은 특정 시점의 결과가 아니라 경험의 축적 과정으로 이해되며 정책 또한 이러한 과정에 맞춰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함
- 따라서 정책의 초점도 ‘무엇을 알고 있는가’에서 벗어나, 아동이 어떤 경험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시사점: ‘측정’에서 ‘성장 흐름 이해’로의 정책 전환

## 아동 미래역량 성장 지원체계, 성장의 방향을 설계하다

### 아동 미래역량과 미래역량 구성체계

- 미래역량은 아동이 놀이, 관계, 돌봄 등 일상 경험 속에서 형성해 가는 능력으로 특정 시점의 수준을 평가하기보다 성장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임. 서울미래아이 사업은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아동의 성장 과정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역량 체계를 제안함. 이는 아동의 현재 수준을 평가하거나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장 방향을 파악하고 적절한 경험과 환경을 설계하기 위한 정책 기준으로 활용됨

4) <https://www.youth.go.kr/youth/mydata/info.yt>

서울시 아동의 미래역량 구성체계

미래핵심역량

미래사회에서 아동에 반드시 요구되는 창의·융합, 디지털 기술, 지속가능성 등 핵심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역량을 의미함



창의·융합



문제해결력



디지털 리터러시



친환경 태도 및 실천



미래주도성



성장기반역량

아동의 성장, 발달의 기초가 되는 요소로서 사회적으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정서역량과 성장에 필요한 여가와 놀이, 심미성을 포괄하는 것으로 미래핵심역량 증진의 기반이 되는 역량을 의미함

사회 정서



자기인식



자기관리



관계인식



관계관리



공동체성



여가·놀이



심미적 감성

그림 2 | 서울시 아동의 미래역량 구성체계<sup>5)</sup>

아동 미래역량 성장 맵핑의 네 가지 관찰 요소

- 한편 아동 미래역량 성장 맵핑은 아이의 돌봄 경험을 “무엇을 했는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과 관계 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체계임. 활동 중심 기록에 머무르는 경우 실제 성장 과정 파악에는 한계가 있으며 ‘경험, 반응, 변화 흐름’을 함께 보는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아이 맞춤형 지원 설계가 가능해짐. 구체적으로 성장 맵핑은 다음의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아동을 관찰함

· 첫째,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활동하였는가?

(경험 맥락) 활동 자체보다 그 활동이 이루어진 환경이 중요함. 어떤 놀이였는지, 누구와 함께했는지, 아이에게 선택권이 있었는지 등이 포함됨. 같은 블록 놀이라도 혼자 했는지, 친구와 협력했는지에 따라 성장의 의미가 달라짐

· 둘째, 활동 과정에서 아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반응·행동)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아이가 참여하는 방식과 감정 표현,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관찰함. 예를 들어 새로운 활동에 바로 뛰어드는지, 망설이다 참여하는지, 도움을 요청하는지 등을 통해 아이의 성향과 강점을 파악할 수 있음

· 셋째, 시간에 따라 아이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경향성)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의 흐름을 살핌. 예를 들어 ‘관찰만 하던 아이 → 부분 참여 → 적극 참여’처럼 변화 패턴을 읽으면 성장 방향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할 수 있음

5)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5b, 아동돌봄콘텐츠 통합 플랫폼 구축 및 확산 사업.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넷째**, 이 아이에게 다음으로 어떤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

(성장 방향) 위 세 가지 관찰 결과를 종합하여, 아이에게 적합한 다음 경험을 설계함. 맵핑은 아이를 평가하는 도구가 아니라,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는 도구임(예: 도전을 회피하는 아이→ 쉬운 협력 활동부터 단계적 제공)

- 네 가지 관찰 요소에 기반한 미래역량 성장 맵핑은 아동에게 자신의 성장 특성과 경향을 이해하고 적합한 돌봄 경험을 선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 동시에 양육자와 돌봄기관 종사자에게는 아동을 단편적 성취나 행동이 아니라 성장 흐름과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공통 해석 기준을 제공하여 보다 정교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 설계를 가능하게 함
- 성장 맵핑은 기존의 아동 진단·평가 방식과는 목적과 활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름. 기존 진단이 특정 시점에 아동의 수준을 점수화하여 선별·판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성장 맵핑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아동의 강점과 성장 방향을 이해하고 지원 경로를 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음

표 2 | 기존 진단과의 차이점

구분	기존 진단·평가	역량 성장 맵핑
목적	선별·판별	이해·연결
기준	점수·등급	경향·패턴
시점	단일 시점	시간 흐름
결과	잘함/부족함	강점·성장 방향
활용	관리·판정	지원 경로 설계

미래역량 성장 맵핑의 통합적 설계

- 미래역량 성장 맵핑은 아동과 양육자의 성장 이해, 그리고 돌봄기관 및 정책 차원의 경험 설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구조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아동·양육자 단위에서는 일상과 돌봄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아이의 반응과 변화 양상을 바탕으로 성장 특성과 강점을 이해하는 기능을 수행함.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아이에게 적절한 다음 경험을 선택하고 연결하는 데 활용됨
- 한편 돌봄기관 및 정책 단위에서 제공되는 경험의 유형과 그에 따른 성장 요소 간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할 수 있음. 이를 통해 기관은 자신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강점을 파악할 수 있고 지역 내 서비스의 중복이나 공백을 조정하는 데 활용 가능함
- 이처럼 아동의 성장 이해와 경험 설계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작동할 때 성장 맵핑은 단순 기록을 넘어서 정책과 운영을 연결하는 기반으로 기능함

성장 맵핑 기반의 연계·적용 구조

- 성장 맵핑은 아동·양육자·돌봄기관·지역사회가 상호 연결되는 순환 구조 속에서 작동함. 아동의 성장 이해는 돌봄 경험 선택으로 이어지고 기관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특성은 다시 아동의 성장 경향에 맞추어 안내·조정되는 방식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함
- 또한, 순환 구조를 토대로 아동과 양육자의 주제적 선택을 지원하고, 돌봄기관과 지역사회가 각자의 역할 속에서 성장 기여 구조를 강화하는 정책적 실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이는 돌봄 정책을 단순한 서비스 제공 중심에서 성장 설계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됨

## 성장 경로 기반 돌봄 체계 전환

- 성장 맵핑을 통해 돌봄 경험은 단편적 활동의 나열이 아니라 아동의 성장 경로 속에서 연결·축적되는 구조로 재구성됨. 이를 기반으로 아동과 양육자의 선택을 지원하고 돌봄기관과 지역사회가 성장 기여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하는 정책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그림 3 | 성장 경로 기반 돌봄 체계

## 향후 과제 및 추진 방향

### 현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성장 맵핑의 단계적 적용

- 미래역량 성장 맵핑은 새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돌봄 현장에서 쌓이고 있는 관찰과 경험을 잘 활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함. 이렇게 하면 돌봄의 질은 높이면서도 현장의 부담은 크게 늘리지 않을 수 있음
- 성장 맵핑을 현장에 적용하려면, 돌봄·놀이·일상 활동을 단순한 이용 기록으로 보지 않고 아이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관점이 필요함. 관찰 내용을 점수로 매기거나 정해진 틀에 맞추기보다, 아이의 경험이 어떻게 반복되고 달라지고 넓어지는지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 핵심임
- 성장 맵핑은 아이를 구분하거나 선별하기 위한 것이 아님. 양육자와 돌봄 종사자가 아이의 강점, 좋아하는 것, 안정감을 느끼는 환경을 함께 이해하고 앞으로 어떤 경험을 제공하면 좋을지 설계하는 데 쓰이는 실천적 도구임
- 아울러, 현장에서 쌓인 관찰과 해석이 평가 자료나 행정보고에 그치지 않고 정책 개선과 지원 방향 설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정책 사이의 소통 구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성장 맥락을 반영한 아동돌봄 정책 체계 재구성

- 서울시 아동돌봄 정책은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돌봄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피는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아이의 성장 상태에 대한 이해와 돌봄기관이 제공하는 경험이 서로 연결되면, 아동과 양육자는 더 주체적으로 돌봄을 선택할 수 있고, 기관은 자신이 제공하는 경험의 특징과 강점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음. 그 결과 아이에게 더 적합한 돌봄 경험이 자연스럽게 안내·연결되는 환경이 만들어짐
- 서울아이 미래역량 성장 맵핑은 아이의 일상 속 경험과 변화 과정을 꾸준히 살펴보고, 그 흐름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발달 방향을 설계하기 위한 정책 도구임. 성장 맵핑이 정착되면, 돌봄 정책은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리 지원하고 준비하는 예방적 체계로 확장될 수 있음
- 서울시는 아동의 성장 경로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관점을 돌봄·보육 정책 전반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각자의 발달 특성과 필요에 맞게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동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연구자 | 송이은 (정책개발실 아동보육정책팀)

## 참고문헌

- 김은정, 임성은, 이지혜, 하태정, 안현미, 김명중. (2024).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돌봄 서비스 수급불균형 분석과 개선방안: 서비스 공급체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5a. 미래역량에 주목하는 아동돌봄의 과제. 서울시여성가족정책리뷰 제6호.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5b. 아동돌봄 콘텐츠 통합 플랫폼 구축 및 확산 사업.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육아정책연구소. (2021). OECD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 분석 정책브리프. KICCE Policy Brief.
- Kim, Y. H. (2022). Maternal Responsive Parenting Trajectories From Birth to Age 3 and Children's Self-Esteem at First Grade. *Front. Psychol.* 13:870669. doi: 10.3389/fpsyg.2022.870669
- OECD. (2015). *Starting Strong IV: Monitoring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ublishing.
- OECD. (2017). *Starting Strong V: Transitions from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o Primary Education*. OECD Publishing.
- OECD. (2019). *OECD Learning Compass 2030*. OECD Publishing.
- OECD. (2021). *Mapping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ublishing.
- OECD. (2023). *Fertility, Employment and Family Policy*. OECD Publishing.
- OECD. (2025). *Education at a Glance 2025*. OECD Publishing.
- OECD. (2025). *Future of Jobs Report 2025*. OECD Publishing.
- UK Department for Education. (2024). *Early Years Foundation Stage(EYFS) Profile Handbook*.
- UNICEF & WHO. (2018). *Nurturing Care Framework for Early Childhood Development*. World Health Organization.
- World Economic Forum(WEF). (2025). *The Future of Jobs Report 2025*. World Economic Forum.
- Zhang, T.-T., Cai, X.-Y., Shi, X.-H., Zhu, W., & Shan, S.-N. (2023). The Effect of Family Fertility Support Policies on Fertility, Their Contribution, and Policy Pathways to Fertility Improvement in OECD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0(6): 4790.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성장지원 마이데이터 플랫폼. <https://www.youth.go.kr/youth/mydata/info.yt> (인출일: 2026.01.12.)
- Australian Government, Social Research Centre. *Australian Early Development Census(AEDC)*. <https://srcentre.com.au/project/australian-early-development-census/> (인출일: 2026.01.12.)
- Finnish Education Evaluation Centre(FINEEC). *Quality Assuranc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Finland*. <https://eurydice.eacea.ec.europa.eu/euryperia/finland/quality-assurance-early-childhood-and-school-education> (인출일: 2026.01.12.)
- Ministry of Education(New Zealand). *Te Whāriki: Early Childhood Curriculum - Assessment, Planning and Evaluation(Learning Stories)*. <https://tewhariki.tahurangi.education.govt.nz/assessment-planning-and-evaluation/5637165598> (인출일: 2026.01.12.)
- McMaster University & Offord Centre for Child Studies. *Early Development Instrument(EDI) Overview*. <https://earlylearning.ubc.ca/monitoring-system/edi/edi-overview/> (인출일: 2026.01.12.)
- UK Department for Education. *Early Years Foundation Stage(EYFS) Profile Handbook*.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arly-years-foundation-stage-profile-handbook> (인출일: 2026.01.12.)